



# 상상 속의 꿈, 그보다 앞선 기술

키 스 컴 한 운 수 대 표

할인마트 계산대에 줄서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통과만 하면 계산 끝. 공장에서는 넓은 부품창고가 필요없다. 부품의 출입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조립라인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꿈의 기술 RFID(무선주파수 인식)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RFID는 바코드의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자동인식기술이다. RFID가 열어갈 가슴 떨리는 미래가 지금 키스컴 한운수 대표의 손에서 무럭무럭 영글고 있다. 꿈보다 더 거대한 유비쿼터스의 세상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다.



## 묵묵히 하지만 일관성 있는 지독한 독심

첨단기술을 다루는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한운수 대표의 표정 속에는 인자함이 녹아 있다. 여기저기서 그를 찾는 전화가 실 새 없지만 인간미 넘치는 대화로 공식적인 딱딱함을 털어낸다. 잔잔한 미소와 함께 풀어내는 그의 이야기는 그러나 드라마처럼 고난의 연속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과 일반직을 오가며 짧은 것을 배우려고 했었지요. 직원들과 싸우기도 엄청 싸웠습니다. 왜 저렇게 없는 일을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하나? 아마 그런 욕 좀 들었을 거예요. 외욕이 마구 솟아났으니까요.”

대한조선공사 비서실에 근무하던 1980년대, 한운수 대표는 컴퓨터라는 생소한 물건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시켰다. 타자기도 첨단 사무용품 대접받던 그 시기에 컴퓨터를 통한 시스템통합을 역설한 한운수 대표는 국내 IT산업의 선구자였던 셈이다.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 한대표는 사표를 내고 꿈에 그리던 자기의 일을 찾아 나섰다. 바코드 산업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지만 당시 국내에는 있지도 않은 기술이라 사업도 돈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컴퓨터를 조립해 팔며 기술 개발 비용을 충당했다. 이런 노력으로 사업이 빛을 보기 시작했지만 한대표는 그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어 국내 최초로 무선 모델과 랜카드를 개발하는데 열성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애써 개발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차갑게 돌아서기도 했다. 또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들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남들이라면 열 번이라도 포기했을 상황이지만 한운수 대표는 여유있게 시련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기술개발을 위해 우크라이나까지 인재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무선으로 상품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키스컴의 RFID 산업이 가속도를 타게 되었다.

## 자존심 있는 벤처로 한국의 미래를 일깨우리라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만 대접받는다라는 것을 산업 현장에서 깨달은 한운수 대표는 어렵지만 홀로서는 자체 기술개발에 기업의 사활을 걸었다. 외국 회사의 제품을 팔아주고도 항상 고마워해야만 했던 기억이 오기로 발동한 것이다. 기술이 곧 최고의 자존심을 깨닫게 된 것이다.

치열한 기술개발로 2001년 드디어 키스컴만의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키스컴의 RFID 시스템은 기존 바코드 시스템과 달리 6~8m 밖에서도 인식이 가능해 미래의 무인통제, 아파트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네트워크되는 유비쿼터스 구축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미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기에 만족할 한대표가 아니다. 그의 사업은 처음부터 세계 최고를 목표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국산화율도 90%에 이르고, 부품·소재산업의 핵심기술이 있으니 앞으로 돌아올 부가가치도 무궁무진하다. 작년 해외 팔주를 막 시작한 따끈한 새내기지만,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그만큼 매출 급증에 거는 기대가 크다. 더군다나 RFID는 정부가 관심을 갖는 차세대 핵심사업이라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면 가공할만한 하이테크기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한대표는 기술과 벤처를 이렇게 정리한다.

“젊은이들이 열기만으로 덤벼드는 게 벤처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진정한 벤처입니다. 현장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결국 완성되는 기술. 여기에 벤처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한대표의 인자한 웃음 속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오독이 근성이 숨어 있다. 웬만한 젊은이를 압도하는 열정으로 실 새 없이 달려온 한운수 대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한대표가 만든 미래의 세상으로 한 걸음 다가간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결국 우리 모두의 풍요로움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해외진출 원년, 기적의 매출을 지켜보라  
작년 70여 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키스컴은  
2005년을 매출상승과 해외진출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RFID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도 선정되어있어, 키스컴의 성장은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투자가 결실을 맺고,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RFID를 대표하는 기술기업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2005년 목표이다.

